

발행인 송년특집

만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통합은
사방에 흐르는 물, 깨진 독에 붓는 격”

>>> [대담] ...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성리] ... 이미자 기자



▲ 이상배 위원장(왼쪽)과 유동준 발행인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광원 전 농해수위위원장 후임에 이상배 의원을 선출했다. 쌀문제, 김치파동,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당면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새롭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 의원은 지난 96년 국회의원인 이래, 1년간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계속 활동해온 삼선의원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3회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울진군수, 안동시장을 거쳐, 경북도지사, 환경청 청장, 총무처장관, 대통령행정수석비서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이상배 의원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고위 내무관료 출신으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도 받고 있다.

『피드저널』 유동준 발행인은 지난 11월 15일 오전 11시 농해수위원장실에서 이상배 농림해양수산

위원장과 식품안전관리 주무부처 논란 등의 농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배 위원장은 이날 상주공연참사 유족들 면담 등 예민한 일정이 연이은 가운데 인터뷰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사료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유동준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흔히 행정관료의 꽃이라는 고위 내무관료 출신으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된다. 농축산업계에서는 이상배에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상배 : 계속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동준 : 현재 8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이상배 : 어불성설이다.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식약청에게 여덟 개 부서의 일을 모두 맡기자는 것은 사방에 흐르는 물을 깨진 독에 붓자는 것과 같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안전 업무를 맡아왔지만, 불량 만두소 파동과 중금속·기생충알 김

치 사건에서 보듯이 번번이 행정의 공백을 드러냈다. 이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본다.

유동준 : 농축업계에서는 오히려 식약청의 업무를 식품과 의약품으로 나누어, 농축산물과 식품은 농림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상배 : 좋은 의견이다. 사실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는 농업부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을 일괄 관리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도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나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식품안전청을 설치하여 먹거리 안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동준 : 김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원장께서 지난 10월 16일 김치, 쌀, 육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다. 육류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모든 축산인들도 학수고대하는 사안이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운을 맞곤 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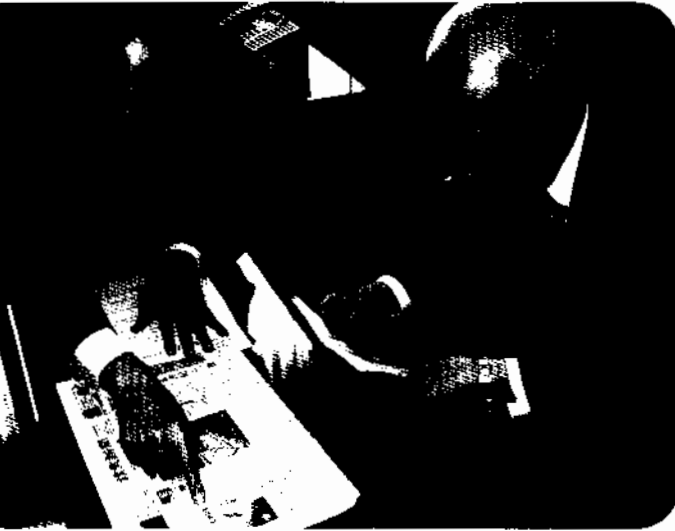
류원산지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배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의무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다행히 육류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계기로 축산인들이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본다. 육류를 제외한 쌀, 김치, 어류에 대한 부문은 음식점들의 입장도 심분 고려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동준 :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축사설치를 두고 축산업과 경종농업간에 이견이 있어왔지만, 순환경농축산업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상배 : 외국의 경우처럼 농지에 축사건립을 허용하되, 여기서 나오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은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종농업은 농지에서, 축산업은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순환형 농업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시범지역의 운영과 함께 장기적인 육성을 검토

(※인터뷰가 있던 이를 후인 11월 17일 오전, 음식점육



▲ 11월14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난 기사를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는 이상배 의원과 유동준 발행인

해야 할 것이다.

유동준 : 맞는 말이다. 축산(畜産)에서 축(畜)자는 짐을 현(玄) 밑에 밭 전(田)자가 합해진 글이다. 검은 밭이란 아주 비옥한 땅을 의미한다. 즉 경종농업과 축산업은 함께 순환하며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배 :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은 외양간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밭에서 주어서 작물을 키우셨다. 친환경 농업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아니냐. 예전의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식대로 가자는 것. 그래서 배추에 배추벌레도 있고, 눈에 거머리도 있어서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그런 논

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된다. 추수가 끝나면 할아버지가 손자들과 미꾸라지도 잡아먹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 될 것이다.

유동준 : 정곡을 찌른 답이라 생각된다. 최근 마사회를 문광부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계에서도 힘써서 농림부로 환원한 마사회를 다시 문광부로 옮기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크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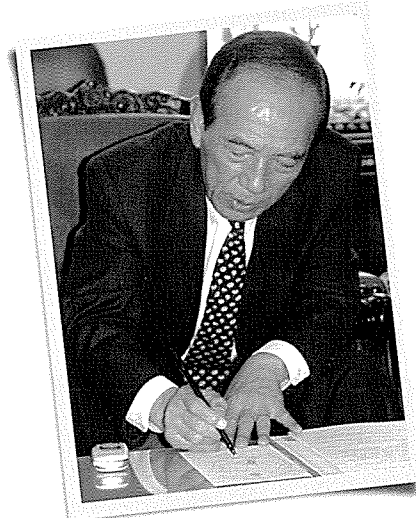
이상배 : 우리는 4년 전 마사회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기반으로 축산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사회를 문광부에서 농림부로 환원해왔다. 실제로 마사회의 환원 이후, 경마수익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 복지사업재원에 출연하여 우리 축산업과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을 무시한 채 경마를 극단적인 사행산업으로 규정하여 다시 문광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저지토록 하겠다.

유동준 : 많은 기대를 하겠다. 끝으로 우리 사료산업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들려 달라.

이상배 :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나다니다 보면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겨울에도 일본 열도와 중국은 푸른 물결을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겨울에도 푸른빛을 띠는 것은 휴경지에 밀·보리를 재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일본도, 우리보다 못사는 중국도 밀과 보리를 심고 있다. 중국에서 건초도 수입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금의 길을 열어가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동준 : 옳은 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사료 확보를 위한 총채보리심기 사업 등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상배 :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북한에는 광물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11월 14일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1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광물이용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것 같다. 조·중어업협정으로 인해 서해로 내려오는 고기도 중국이 다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북에 퍼 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할 때다.



유동준 : 동감이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어 고맙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거듭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㉔